

국내 패션색채트렌드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Domestic Fashion Color Trend

백 민 영 · 김 유 경⁺

Baek, Min Young · Kim, Yu kyung⁺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과 석사과정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과 부교수⁺

Graduate student,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prepare for the theoretical basis required for practical business affairs of planning and ultimate significance to suggest color data for efficient utilization when the future fashion color trends are forecast and suggest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ashion color trends of the domestic fashion planners for 6 seasons, 3 years and understanding the flow and characteristics of its changes. For this, domestic fashion information planners were surveyed, compared and analyzed. The color data of fashion color trends utilized the data of Samsung Designnet(233colors)and Interfashion Planning(240colors), domestically well-known fashion information planners which can swiftly supply new data to analyze total 473colors for the recent 3years from S/S in 2007 to F/W in 2009. Color analysis used the Natural Color System to analyze it as colors and tones.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color distribution of the Samsung Designnet's S/S season was shown comparatively regular except BG series. F/W season showed a high distribution in RB series. Regarding the color distribution of Interfashion Planning's S/S season, a high distribution was shown in GY and RB series. As for F/W season's colors, B and R series were high in distribution. Second, when S/S season and F/W season are compared and analyzed by series colors, Y series showed the highest in S/S season and R series did in F/W season. Third, based on the general analysis results the color trends of S/S season and F/W season in 2010 according to appearance frequency were suggested with a color pallet composed of total 24 colors after 12 representative colors by season were extracted.

Key Words : color trend, fashion trend, natural color system, fashion color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트렌드의 경향을 수립·제시하는 전문 집단은 패션 정보업계이다. 이들은 예술의 흐름, 사회 현상, 문화 현상, 소비자심리 등을 분석하여 시즌별로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시대동향에 맞는 색을 설정하여 트렌드를 예측한다. 여러 가지 예측 정보 중에서 색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색이 인간의 감성에 빠른 자극을 준다고 하는 것이다.¹⁾ 패션 분야의 색에는 유행이라는 속성이 까다롭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색채와 디자인 전공학자인 버니스 G. 채임버스(Bernisce G. Cambers)는 유행의 변천에는 반드시 색채의 변천도 함께 따른다고 하여²⁾, 트렌드를 고려한 패션의 중요함을 시사하였다.³⁾

트렌드(trend)란 추세 경향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열풍이 패드라면, 트렌드는 중장기적인 동향을 나타낸다. 현재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트렌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트렌드 예측은 미래예측에 필수적인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시제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예측자의 시나리오에 의하여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현장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과거의 흐름을 평가하고, 변화를 반영시켜 경향을 수시로 수정해 나가기 때문이다.⁴⁾ 이에 패션업계에서도 컬러의 기능 중 예측의 기능이 중요시 되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컬러 트렌드를 연구하는 것은 패션제품의 기획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패션정보기획사에서 제시한 색채 트렌드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예측을 위한 디자인의 기획 실무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인지도 높은 패션정보기획사로서 삼성디자인넷과 인터패션플래닝에서 제시한 최근 3년간의 색채 트렌드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제시하고 나아가 출현빈도에 따른 2010년 S/S 시즌, F/W 시즌의 색채 트렌드를 예측하여 제시함으로써 금후 패션 트렌드를 예측·제시 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론적 연구는 문헌과 학술 연구지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색의 체계, 패션과 색채, 트렌드 색채에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보다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는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고, 나아가서 과거 10년마다의 추이를 도출해내어 타당도와 신뢰도를 구축해야하나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로서 국내 패션 정보기획사 삼성디자인넷과 인터패션플래닝의 2007년 S/S 시즌부터 2009년 F/W 시즌까지 최근 3년간 6시즌 패션 색채트렌드를 비교·분석하여 그 변화의 흐름과 특징을 조사 분석하였다.

색채자료는 국내 인지도 높은 패션정보기획사 삼성디자인넷(<http://www.samsungdesign.net/>)과 인터패션플래닝(<http://www.ifp.co.kr/>)의 웹 사이트 상의 디지털자료를 활용하였다. 웹 사이트상의 디지털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컴퓨터의 환경 요소에 따라 색 값의 차를 보일 수 있으나 인쇄매체는 스캔하여 사용할 경우 원천자료의 색채가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색채 값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디지털 자료를 활용함에 제한점을 둔다. 색채 분석은 자연색체계 NCS(Natural Color System)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의해 업체별, 시즌별, 연도별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국내 패션정보기획사 삼성디자인벡과 인터패션플래닝의 웹사이트 상에 제시된 트렌드 색채, 437색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국내 패션정보기획사 삼성디자인벡과 인터패션플래닝에서 제시된 색채팔레트의 색채를 분석하였다. 색채분석은 포토샵(Photoshop)프로그램에서 아이드롭퍼(eyedropper)로 Lab(L*a*b*)색을 추출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Lab(L*a*b*)값에서 NCS색 값으로 변환하였다.

셋째, 변환된 NCS 색채 값을 색상, 색조분포도로 작성하였다. 색조분포도를 바탕으로 NCS Characteristic Nuance Area에 적용시켜 색조 영역별 파악을 하였다.

넷째, 변환된 NCS 색채 값을 N(무채색)계열, Y(yellow)계열, R(red)계열, B(blue)계열, G(green)계열의 계열별 색채 사용빈도를 분석하고, 업체별, 시즌별, 연도별로 색채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섯째, 각 업체의 색채트렌드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출현빈도에 따른 2010년 S/S시즌, F/W시즌의 색채트렌드를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색의 체계

1) NCS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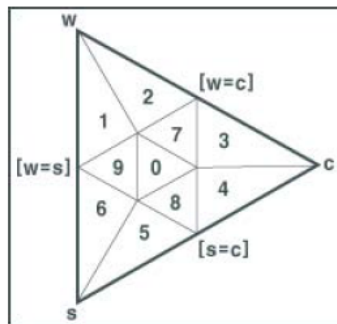
NCS색체계는 산업체에서 색채트렌드 정보 분석과 그 활용도에 있어 대표적 색체계라고 할 수 있다. NCS는 인간이 색을 어떻게 보는가에 기초하여 완성한 논리적인 색체계이다. 심리적인 비율 척도를 사용해 색 지각량을 표로 나타내었다. 물체의 색은 조명 광에 따라 색이 변하지만, 물체나 조명에 관계없이 그 순간에 보이는 색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보이는 색이란 인간의 시각 기관인 망막을 통해 뇌에 전달된 색자극을 말한다. 5) 색채 지각변수-거리, 빛, 표면구조에 따른 관찰자의 반응을 통계적으로 적용하여 인간과 색채, 환경과의 연관성을 높인 색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기계론적이고 절대적이었던 기존색채 한계를 지닌 먼셀체계와 비교했을 때, NCS는 색채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인접색과의 비교에 의한 상대적 개념으로 확률적인 색을 표현한다. 사람은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을 구별하여 색채를 정확히 볼 수 없으며, 색상, 색조를 동시에 총체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색상,倪양스의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는 NCS는 배색이나 색채 계획 시에 적용이 용이하다.6)

NCS색체계는 노랑(yellow), 빨강(red), 파랑(blue), 녹색(green)의 4가지 유채색과 하양(white), 검정(schwarz)의 2가지 무채색을 합하여 모두 6가지 색을 기본으로 한다. 색상환에는 빨강, 노랑, 녹색, 파랑의 4색을 기본으로 각 색을 10등분한 40색상이 배열되어 있다. 색상의 표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이는가를 근거로 한다. 예를 들면, 빨강으로부터 노랑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무수한 색을 100이라는 숫자로 대응시키고 있다. 순수한 빨강은 R이고 빨강에서 노랑색 느낌이 10만큼 있다면 Y90R로 표기한다. NCS에서도 오스트발트와 마찬가지로 명도와 채도를 구분하지 않고倪양스 즉 톤의 개념으로 표현한다. 색 삼각형의 무채색 축을 10단계로 분할하여 표현한다. 무채색 축과 평행한 선은 포함된 순색의 양(채색도)을 표현하는 것이며, 백색과 순색을 표현하는 것이다. NCS에서 색의 표기는 S7020-R20B로 한다. 여기서 S는 2번째 판(second edition)을 70은 흑색도, 20은 채색도를 나타내며 R20B는 빨강에서 파랑으로 20%만큼 떨어진 위치의 색상을 표시한다. 이러한 표기에 의해 모든 색은 흑색도, 채색도, 백색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흑색도(S)+채색도(C)+백색도(W)=100 NCS는 지각경험에 기초한

현상학적 입장에서 색을 표현하므로 색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7)

2) NCS 뉘앙스 영역

NCS뉘앙스 영역은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역별로 그에 해당하는 색조의 특징이 나누어진다. 1area에 해당하는 영역은 무채색에 가까운 옅은 색조이며, 2area에 해당하는 영역은 밝으면서 연한 색조이다. 3area에 해당하는 영역은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밝은 색조를 나타내며, 4area에 해당하는 영역은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이다. 5area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두우면서 짙은 색조이며, 6area에 해당하는 영역은 무채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조이다. 7area, 8area, 9area에 해당하는 영역은 색조의 특징이 모호하며, 0area에 해당하는 영역은 색조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8)



1. Toned light Grey
2. Light clear
3. Brilliant(chromatic clear)
4. Deep chromatic(chromatic deep)
5. Dark deep
6. Toned dark grey
7. (Clear)
8. (Deep)
9. (Toned grey)
0. Greyish chromatic

<그림 1> NCS 캐리터리스틱 뉘앙스 에어리어 (NCS Characteristic Nuance Area)

2. 트렌드와 색채

트렌드 색채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에 의한 것이다. 인간의 감각은 처음 접하는 자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계속되는 자극에는 점점 반응에 약해져 새로운 자극을 주는 새로운 감각, 즉 새로운 색을 원하게 된다. 패션 분야에서 사용되는 유행색 (trend color)은 두 가지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가까운 미래 혹은 먼 장래에 유행될 것이라 ‘예측제안되는 유행 예측색’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착용하여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색’이다. 일반적으로 유행색이라 말할 때에는 후자의 의미인 경우가 많으나 유행색정보기획, 트렌드와 더불어 사용될 때에는 전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의미하며, 색채트렌드라 정의 내린다. 본 연구는 인간이 색을 어떻게 보는가에 기초하여 완성한 논리적인 색체계로서 산업체에서 색채트렌드 정보 분석과 그 활용도에 있어 대표적 색체계라고 할 수 있는 NCS색체계를 토대로 국내 패션색채트렌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국내 패션색채트렌드 분석

자연색체계 NCS에 근거하여 각 업체별, 색상분포도와 색조분포도를 다음 <표 1>, <표 2>, <표 3>, <표 4>로 정리하고 여기에 나타난 색채를 NCS 뉘앙스 에어리어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1. 삼성디자인넷(Samsung Desin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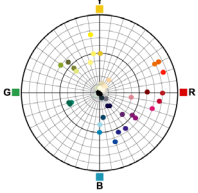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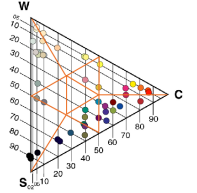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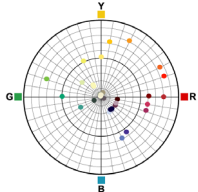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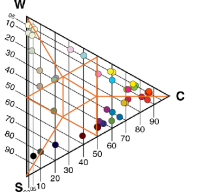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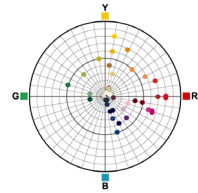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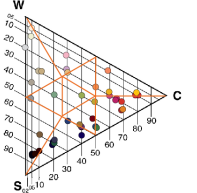
<표 1>은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삼성디자인넷의 각 연도별, 시즌별 색채트렌드에 나타난 색상, 색조 분포도이다. 2007년도 S/S 시즌의 색상은 BG계열을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색조는 유채색도가 높고 밝은 3area에 해당하는 색조와 밝으면서도 연한 색조의 2area 영역에 해당하였다. F/W 시즌의 색상은 Y계열과 R계열의 분포가 높았으며, BG계열의 분포가 현저히 낮았다. 색조는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4area와 어두우면서 짙은 색조인 5area 영역에 해당하였다.

2008년도 S/S 시즌의 색상은 Y계열과 R계열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색조영역은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4area에 집중 분포하였다. F/W 시즌의 색상은 RB계열의 분포가 높았으며, 색조는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밝은 색조영역인 3area와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4area에 분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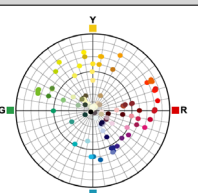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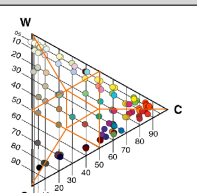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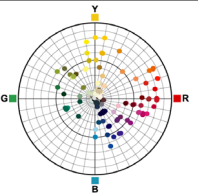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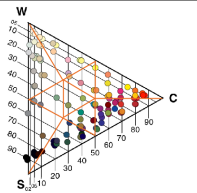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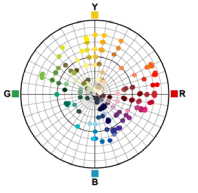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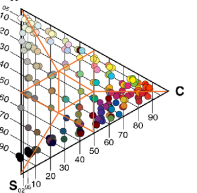
2009년도 S/S 시즌의 색상은 Y계열과 R계열의 분포가 높았으며, 색조는 3area 영역과 4area영역에 집중 분포하였다. F/W 시즌의 색상은 BG계열은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포를 나타냈으며, 색조영역은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표 1> 삼성디자인넷 색채트렌드 연도별, 시즌별 분포도

		색상분포도	색조분포도
삼성 디 자 인 넷	07		
	08		

삼성디자인넷	08	F/W		
	09	S/S		
		F/W		

<표 2> 삼성디자인넷 색채트렌드 종합 분포도

		색상분포도	색조분포도
삼성	S/S		
	F/W		
	종합		

<표 2>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종합분포도이다. S/S시즌의 색상분포는 BG계열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색조는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밝은 색조영역인 3area와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인 4area인 영역에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F/W시즌의 색상은 RB계열에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GY 계열도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색조는 무채색에 가까운 옅은 색조영역인 1area와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영역인 4area 영역에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2. 인터패션플래닝(Interfashion Planning)

색채분석 <표 3>은 자연색채계에 근거한 인터패션플래닝의 각 연도별, 시즌별 색채트렌드에 나타난 색상, 색조 분포도이다.

2007년 S/S 시즌의 색상은 BG계열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며, 특히 Y 계열에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색조는 밝으면서 연한 색조인 2area와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밝은 색조영역인 3area에 해당하였다.

2008년 S/S 시즌의 색상은 RB계열이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색조는 무채색에 가까운 옅은 색조영역인 1area와 밝으면서도 연한색조의 2area에 해당하였다. F/W 시즌의 색상은 B계열에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색조는 어두우면서 짙은 색조 영역인 5area에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2009년 S/S 시즌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며, 색조는 밝으면서도 연한 색조의 2area와 무채색에 가까운 어두운색조인 5area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F/W 시즌의 색상은 B계열의 분포와 BG계열의 분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색조는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4area와 무채색에 가까운 어두운색조인 5area영역에 고르게 분포하였다.

<표 3> 인터패션플래닝 색채트렌드 연도별, 시즌별 분포도

			색상분포도	색조분포도
인 터 패 션 플 래 닝	07	S/S		
		F/W		

<표 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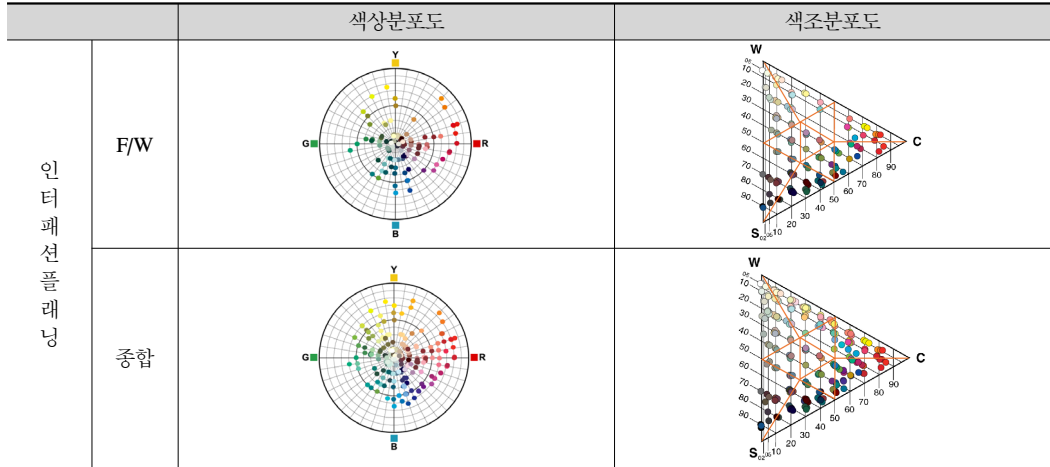
		색상분포도	색조분포도	
인 터 패 션 플 래 닝	08	S/S		
		F/W		
	09	S/S		
		F/W		

<표 4>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종합분포도이다. S/S시즌의 색상분포는 GY계열과 RB계열에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색조는 무채색에 가까운 옅은 색조인 1area 영역과 밝으면서도 연한 색조의 2area 영역에 해당하였다. F/W시즌의 색상은 B계열과 R계열이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색조는 무채색에 가까운 옅은 색조인 1area영역과 무채색에 가까운 어두운색조인 5area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 인터패션플래닝 색채트렌드 종합 분포도

		색상분포도	색조분포도
인 터 패 션 플 래 닝	S/S		

<표 4> 계속



IV. 국내 패션색채트렌드의 특성 및 예측

1. 국내패션색채 트렌드의 특성

2007~2009년까지 국내 패션정보기획사의 패션색채트렌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전체 3년간 제시된 473개의 색채를 분석하였다. 삼성디자인넷에서 233색, 인터패션플래닝에서 240색을 추출하여 총 473개의 색채를 분석하였다.

<표 5> 업체별 색채트렌드 사례수

	07 S/S	07 F/W	08 S/S	08 F/W	09 S/S	09 F/W	합계
삼성	32	32	32	49	45	43	233
인터패션	40	40	40	40	40	40	240
합계	72	72	72	89	85	83	473

1) 업체별 색채 활용특성

2007~2009년까지 국내 패션정보기획사의 패션색채트렌드를 업체별 색채수와 백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각 업체별로 색채를 살펴보면 삼성디자인넷에서는 R계열이 3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Y계열, B계열, G계열, N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N계열이 현저히 낮은 비율이었다. 인터패션플래닝은 R계열이 30.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계열, Y계열, G계열, N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N계열이 현저히 낮은 비율이었다.

국내 패션정보기획사의 색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R계열, Y계열, B계열, G계열, N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두 업

체 모두 R계열이 30%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N계열은 4%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6> 업체별 색채트렌드 계열의 빈도수

	N계열	Y계열	R계열	B계열	G계열	합계
삼성	7	74	75	52	25	233(색)
백분율	3.00	31.76	32.19	22.32	10.73	100(%)
인터	9	58	74	62	37	240(색)
백분율	3.75	24.17	30.83	25.83	15.42	100(%)
종합	16	132	149	114	62	473
백분율	3.38	27.91	31.50	24.10	13.11	100(%)

2) 시즌별, 연도별 색채 활용특성

각 시즌에 따른 색채 계열의 빈도수는 다음 <표 7>과 같다. 전반적인 S/S 시즌과 F/W시즌을 계열별 색채로 비교분석하면 S/S 시즌에는 Y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F/W시즌에는 R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Y계열과 R계열을 제외한 B계열, G계열, N계열은 S/S시즌 F/W시즌 모두 빈도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7> 시즌별 색채트렌드 계열의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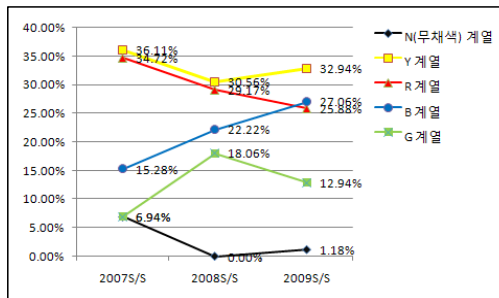
		N계열		Y계열		R계열		B계열		G계열		합계	
삼성	S/S	1	7	37	74	35	75	22	52	14	25	109	233
	F/W	6		37		40		30		11		124	
인터	S/S	5	9	38	57	34	75	27	61	16	38	120	240
	F/W	4		19		41		34		22		120	
전체	S/S	6	16	76	132	68	149	50	114	29	62	229	473
	F/W	10		56		81		64		33		244	

각 연도에 따른 색채계열의 빈도수는 <표 8>과 같다. 2007년 R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Y계열, B계열, G계열, N계열 순이었다. 2008년 역시 R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Y계열, B계열, G계열, N계열 순이었다. 2009년에도 R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B계열, Y계열, G계열, N계열 순이었다. 2009년에만 B계열과 Y계열의 순위 변동이 있었으며 최근 3년간 R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계열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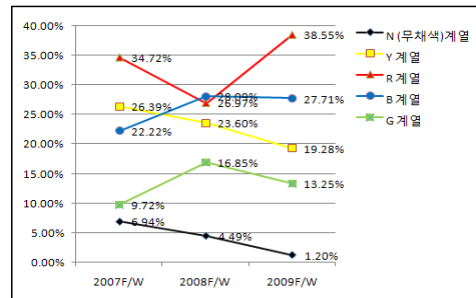
각 연도에 따른 색채 계열의 변화는 <그림 2>과 <그림 3>로 나타내었다. <그림 2>은 최근 3년간 S/S 시즌의 색채계열의 변화로 N계열은 2007년에 6.94%에서 2008년 감소, 2009년 1.18%로 조금 증가되었다. Y계열은 2007년 36.11%에서 2008년 30.56%로 감소, 2009년도 32.94%로 다소 증가되었다. R계열은 2007년 34.72%에서 다음해 29.17%로 감소, 그 다음해엔 25.88%로 2007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B계열은 2007년 15.28%에서 2008년 22.22%로 증가, 2009년 25.88%로 3년간 큰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G계열은 2007년 6.94%에서 2008년 18.06%로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다음해인 2009년에는 12.94%로 감소하여 큰 변화율을 나타냈다.

<표 8> 업체별 색채트렌드 사례수

		N계열	Y계열	R계열	B계열	G계열	합계
삼성	2007	3	22	22	11	6	64(색)
	백분율	4.69	34.38	34.38	17.19	3.38	100(%)
	2008	3	25	22	20	11	71(색)
	백분율	3.70	30.86	27.16	24.69	13.58	100(%)
	2009	1	27	31	21	8	88(색)
	백분율	1.14	30.68	35.23	23.86	9.09	100(%)
인터	2007	7	23	28	16	6	80(색)
	백분율	8.75	28.75	35.00	20.00	7.50	100(%)
	2008	1	18	23	21	17	80(색)
	백분율	1.25	22.50	28.75	26.25	21.25	100(%)
인터	2009	1	17	23	25	14	80(색)
	백분율	1.25	21.25	28.75	31.25	17.50	100(%)
종합	2007	10	45	50	27	12	144(색)
	백분율	6.94	31.25	34.72	18.75	8.33	100(%)
	2008	4	43	45	41	28	161(색)
	백분율	2.48	26.71	27.95	25.47	17.39	100(%)
	2009	2	44	54	46	22	168(색)
	백분율	1.19	26.19	32.14	27.38	13.10	100(%)
전체	전체	16	132	149	114	62	(색)
	백분율	3.38	27.91	31.50	24.10	13.11	100(%)



<그림 2> S/S 시즌의 연도별 색채 계열의 변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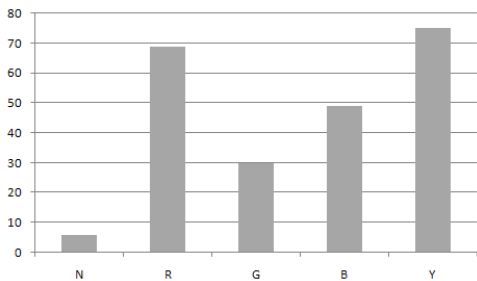
<그림 3> F/W 시즌의 연도별 색채 계열의 변화도

<그림 3>은 최근 3년간 F/W 시즌의 색채계열의 변화로 N계열은 2007년에 6.94%에서 2008년 감소, 2009년 1.20%로 2007년 이후 계속 감소되었다. Y계열은 2007년 26.39%에서 2008년 23.60%로 감소, 2009년에도 19.28%로 2007년 이후 계속 감소되었다. R계열은 2007년 34.72%에서 다음해 26.97%로 감소, 그 다음해엔 38.5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B계열은 2007년 22.22%에서 2008년 28.09%로 증가, 2009년 27.71%로 다소 감소하였다. G계열은 2007년 9.72%에서 2008년 16.85%로 증가하였으며, 다음해인 2009년에는 13.25%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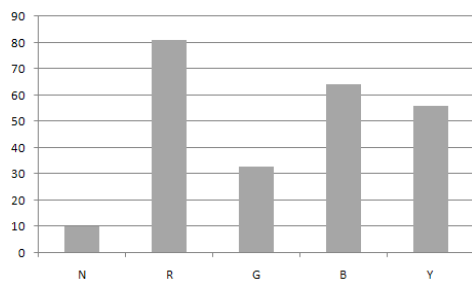
2. 국내패션색채 트렌드의 예측

컬러는 시즌마다 전적으로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시즌의 컬러가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진화하는 것으로 2010년 색채트렌드 또한 전 시즌의 컬러를 토대로 예측되어지고 진화해나가는 것이다. 2010년 국내 패션색채 트렌드 예측을 위해 최근 3년간 삼성디자인넷과 인터패션플래닝의 패션색채트렌드를 비교·분석하고 그 변화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여, 전문가 집단의 컬러 플래닝 자료를 토대로 심층회의 끝에 최종 선택되어진 컬러를 대표 색으로 선정하여 2010년 S/S시즌과 FW시즌의 색채트렌드를 예측해보았다.

<그림 4>와 <그림 5>는 최근 3년간 두 정보기획사의 출현빈도 SS시즌은 Y계열 75색, R계열 69색, B계열 49색, G계열 30색, N계열 6색으로 Y계열, R계열, B계열, G계열, N계열로 순으로 나타났다. FW시즌은 R계열 81색, B계열 64색, Y계열 56색, G계열 33색, N계열 10색으로 R계열, B계열, Y계열, G계열, N계열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S/S 시즌의 출현빈도 그래프



<그림 5> F/W 시즌의 출현빈도 그래프

<표 9>는 출현빈도에 따른 2010년 SS시즌과 FW시즌의 색채팔레트로 SS시즌은 Y계열 4색, R계열 3색, B계열 2색, G계열 2색 N계열 1색으로 총 12색상을 선정하였다. Y계열 색상은 2008년의 증가 추세를 이어 계속 지속 될 것이며, 무채색에 가까운 엷은 색조를 띠는 1area 영역에 주로 분포한다. R계열은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밝은 색조를 나타내는 3area 영역에 분포하고, B계열은 지난 시즌에 이어 꾸준히 증가 될 것이며,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영역인 4area 영역에 분포한다. G계열은 1area 영역에 분포하며 지난 시즌에 이어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N계열은 현저히 낮은 비율로 이번시즌에도 지속될 것이다.

FW시즌의 색채팔레트는 R계열 4색, B계열 3색, Y계열 3색, G계열 2색, N계열 1색으로 총 12색상을 선정하였다. R계열 색상은 2008년의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지난 시즌에 이어 계속증가 될 것이며, 어두우면서 짙은 색조 영역인 5area에 주로 분포한다. B계열은 R계열과 마찬가지로 5area 영역에 분포하고, 지난 시즌에 보다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Y계열은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밝은 색조를 나타내는 3area 영역에 분포하고, 200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이번시즌에도 감소추세를 나타 낼 것이다. G계열은 어두우면서 짙은 색조 영역 5area 영역에 분포하며 지난 시즌에 이어 지속 될 것이다. N계열은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며 이번시즌에도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최근 경기불황 속에 기초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망을 인지하고 몇 년간 브라이트 컬러의 폭발이라고 할 만큼 전반적으로 원색이 강세를 보였다. 2010년 SS시즌에는 전 시즌의 흐름을 이어받아 전반적으로 유채 색도가 높고 밝은 컬러레인지리를 유지할 것이며, 2010년 FW시즌에는 전반적으로 어두우면서도 짙은 색조의 컬러 레인지와 SS시즌의 영향을 받아 유채색도가 높은 원색을 동반한다.

<표 9> 출현빈도에 따른 2010 색채트렌드

	N계열	Y계열	R계열	B계열	G계열
2010SS	 S0500-N	 S0505-G70Y  S0520-G70Y  S0505-Y  S1005-Y20R	 S1080-R  S0585-Y70R  S1575-R10B	 S4055-R70B  S3555-R60B	 S0575-G20Y  S10500-B70G
2010FW	 S9000-N	 S2060-Y10R  S0575-G90Y	 S2570-R  S6030-R10B  S8505-R20B  s2065-R20B	 S8505-R80B  S5540-R70B  S7020-R60B	 S6530-G10Y  S6530-B50G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간이 색을 어떻게 보는가에 기초하여 완성한 논리적인 색체계로서 산업체에서 색채트렌드 정보 분석과 그 활용도에 있어 대표적 색체계라고 할 수 있는 NCS색체계를 토대로 국내 대표적인 패션정보기획사에서 제시한 색채 트렌드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예측을 위한 디자인의 기획 실무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2007년 S/S부터 2009년 F/W 최근 3년간 삼성디자인넷 233색, 인터패션플래닝 240색, 총 473색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디자인넷의 S/S 시즌의 색상분포는 BG계열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색조는 3area와 4area인 영역에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F/W시즌의 색상은 RB계열에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색조는 1area와 4area영역에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인터패션플래닝의 S/S시즌의 색상분포는 GY계열과 RB계열에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색조는 무채색에 가까운 엷은 색조인 1area영역과 밝으면서도 연한 색조의 2area 영역에 해당한다. F/W시즌의 색상은 B계열과 R계열이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색조는 1area영역과 5area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인 S/S 시즌과 F/W시즌을 계열별 색채로 비교분석하면 S/S 시즌에는 Y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F/W시즌에는 R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Y계열과 R계열을 제외한 B계열, G계열, N계열은 S/S시즌 F/W시즌 모두 빈도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출현빈도에 따른 2010년 S/S시즌과 F/W시즌의 색채트렌드를 색채팔레트로 제시하였다. SS시즌의 색채팔레트는 Y계열 4색, R계열 3색, B계열 2색, G계열 2색 N계열 1색으로 총 12색상을 선정하였으며, 2010년 SS시즌에는 전반적으로 유채색도가 높고 밝은 컬러레인을 유지할 것이다. FW시즌의 컬러팔레트는 R계열 4색, B계열 3색, Y계열3색, G계열 2색, N계열 1색으로 총 12색상을 선정하였으며, 2010년 FW시즌에는 전반적으로 어두우면서 짙은 색조의 컬러레인과 유채도가 높은 원색을 동반한다.

본 연구는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3년간 패션정보기획사에서 제시한 색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패션색채트렌드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패션색채트렌드를 예측·제시 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색채 자료를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의의가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패션색채트렌드의 흐름을 분석하고, 예측·제시함에 있어 국내 패션정보기획사인 삼성디자인넷과 인터패션플래닝에서 제시한 색채라는 제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추이만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지 못한 것에 연구의 제한점을 둔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정확한 색채정보제시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색채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요인을 도출해 내야할 것이다. 패션트렌드의 특성과 색채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구축하고, 나아가 급변하는 패션산업현장에서 유용한 색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장원경 (1997). 한국패션의 유행색 정보기획 사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 2) 김용훈 (1987). 색채상품 개발론, 서울: 청우, p.118.
- 3) 조엘 베스트 (2006). *That's a fad*, 서울: 사이, p.1.
- 4) 서정희 (2005). 소비트렌드 예측의 이론과 방법, 서울: 내하, p.1.
- 5) 문은배 (2005). 색채의 이해와 활용, 서울: 안그래픽스, p.147.
- 6) 백은성 (2005). 신규 패션브랜드 웹사이트 색채계획 연구, 한국색채학회, 19(3), p.22..
- 7) 이민정 (2004). 자연색채계(Natural Color System)와 비렌(Birren Faber)의 조화론을 적용한 색채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8(3), p.63.
- 8) 이민정 (2003). 밀라노 컬렉션에 나타난 의상디자인의 색채연구 -2001 S/S ~ 2003 F/W 배색 경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